

특별특리

정읍 민·관·군 통합방위 강화

정읍시, 산림 수집단 본격 활동

정읍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하 수집단)이 지난 2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수집단에는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모두 50명이 참여한다. 수집단은 숲 가꾸기 사업 등으로 발생한 임목을 수집해 판매하거나 소의계층에 팔림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6억8천만원이 투입되고 오는 10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실시된다.

시에 따르면 수집단 사업은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 가꾸기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정읍지역에서는 매년 약 1천220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용 가능한 땅은 산림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수집비용의 과다 소모 등의 이유로 발생량의 10%만 이용되고 나머지는 방치되고 있어 이로 인한 자원낭비는 물론 산불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수집단 운영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통합방위협, 올해 실전 교육 훈련·시설 장비 확충 등 추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로켓 발사로 촉발된 개성공단 폐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가운데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의장 김생기 시장)가 지난 3일 통합방위회의를 열고 지역방위의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시의 통합방위계획에 따르면 정읍시의 구성자원은 인구 11만8천여 명과 토지 약 683km, 주택 5만988동, 사업체 8천915개, 가축 877만1천여 마리 등이다.

이를 보호할 통합방위 지원 관련, 인적자원은 민방위대원 6천339명과 향토예비군 3천488명 등 9천827명이다.

물적자원은 대피소 8개소와 경보시설 4개소, 비상급수시설 17개소의 시설과 전차메카폰,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등 6종 1천889개, 방독면 3천 397개의 장비가 확보돼 있다.

통합방위협으로는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방송사 등 17개 사업체가 동원자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올해 △통합방위기구 강화 △실전 교육 훈련 강화 △시설 장비·차량 확충 △예비군육성사업 지원 강화 △대국민 통합방위홍보 강화 등 5가지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민방위 대원과 시민 1만여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과 생활민방위 그리고 응급처치 전도사 교육 등을 실시해 인명구조 인력을 확보했다.

또한 다중집합장소에 대형관정 2개소를 개발해 유사시 식수원 확보와 심폐소생술 교육훈련용 애니 30개를 구입해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방독면 1천100개와 민방위훈련 지휘용 엠프, 차량 등을 확충하고 통합방위작전 훈련, 예비군교육 훈련시설 확충 사무장비 구입 등 예비군 육성 사업비 1억1천709만원을 군부대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협의회는 전북서부보훈지청장과 정읍교도소장을 위원으로 영입하고 연 초 기관사로 교체된 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교부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김영현 전북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장성철 전라북도교육지원청 정읍교육장, 김주원 정읍경찰서장, 이우실 전북서부보훈지청장, 백흥기 정읍교도소장, 김성길 국군기무사 정읍담당관, 최승진 정읍역량 안동훈 KT정읍지점장 등 8명으로 2명이 증원돼 위원은 모두 17명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야생화인 변산바람꽃 개화가 시작되었다.

봄을 알리는 양증맞은 변산바람꽃

변산반도 국립공원 대체서식지 이달말까지 개방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재)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야생화인 변산바람꽃 개화가 시작되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깃대 종으로 지정된 변산바람꽃은 변산반도에서 처음 발견된 한국특산종으로 10cm 가량의 아주 양증맞은 꽃이며, 이른 봄에 가장 빨리 개화하는 야생화 중 하나이다.

깃대종이던 특정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야생 동·식물로서 국민들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종이다.

변산바람꽃 서식지는 탐방로 외 구간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곳이며, 일부 무분별한 출입과 변산바람꽃의 유출 위험으로부터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체서식지를

조성하여 개방·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개방. 운영될 예정이며 관찰 방법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변산분소에 방문하여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출입증을 받은 후 가능하다. 변산바람꽃 서식지 출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내변산분소(063-584-7807)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조경육 자원보전과장은 오는 3월 초, 변산바람꽃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야생화를 훼손하거나 탐방로를 벗어나 관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변산바람꽃 자생지 지역을 무단 출입하는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2호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건설업체 관계자 간담회

김제시는 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제시지회 및 관내 건설업체 관계자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복 부시장을 비롯한 건설공사 관계자 및 박종민 김제시 전문건설협회장 등 건설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최근 전국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 내 발주사업에 대한 수주를 실패를 점검하고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이승복 부시장은 "현재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건설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공사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자재·인력·장비의 우선적 사용을 당부했고 협회 및 건설업체 간 상호협력 을 통하여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태 기자



이날 캠페인은 '학교폭력 ZERO,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부안경찰서와 부안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부안여고 정문에서 신입생·재학생 500여명 참가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신형남)는 신학기를 맞아 지난 2일 부안여자고등학교 정문에서 신입생 및 재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학교폭력 ZERO,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부안경찰서와 부안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캠페인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와 함께 학교 부작을 청소년을 위한 부안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사업 홍보, 청소년전화 1388 홍보 등으로 진행됐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예방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CYS-Net 사업으로 부안지역 청소년사 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교폭력 예방 뿐만 아니라 위기(가능) 청소년 및 지역 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긴급 지원(의료·학업지원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노사협의회 개최

정읍시는 지난 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생기 정읍시장 등 노사협의회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1차 정읍시노사협의회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노사 공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노사 각각 4명의 위원을 구성한 후 이날 첫 번째 노사협의회를 가졌다.

노사협의회 의장으로 선임된 김생기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북히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근로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근로자의 고충처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자 측의 차승호 위원은 "비쁜 시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사 협의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고 있는 시에 감사드립니다"며 "이후에도 현장 근로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시민 1일 명예실과장제

김제시(시장 이건설)는 3일 읍면동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1일 명예실과장제"를 운영했다. 이번 명예 실과장제는 주부, 농업인 등 일반시민들이 김제시청 1일 명예실과장으로 위촉되어 김제시 주요사업장 현장견학과 행정체험을 한다.

명예실과장제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라고 한다. 명예 실과장 28명은 시 주요현안 사업인 새만금 2호 방조제 현장 등을 방문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표했다. 이날 이들 명예실과장은 이건설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제=곽태 기자

KTX 김제역 정차방안 모색

김제시, 광주시·장성군과 연대하여 공동건의 합의

김제시는 지난 2일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와 장성군 경제교통과를 방문 지난해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단절된 KTX 김제역 정차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3개 시군에서는 KTX가 김제·장성·광주역에 정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서대전역 경유 익산역 종착 KTX노선을 김제~장성~광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합의했다.

또한 2016년 8월 수서발 KTX의 개통으로 철도운영계획을 다시 세우는 현시점이 KTX 정차를 건의하기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며, 김제시와 장성군이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를 합동방

문, KTX 정차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각 단체장의 일정을 서로 조율하기로 했다.

김제시 경제교통과장은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단절된 KTX의 김제역 정차를 위하여 지난 1년간 열심히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광주, 장성과 연대하여 김제역에 KTX가 정차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호남고속철도는 용산~오송~광주순정 노선과 용산~오송~서대전~익산역 종착 노선만 운행되고 있어 김제역, 장성역, 광주역은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제=곽태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귀감이 곁담함을 한껏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거여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 Premium Obdi Wine

GIFT SET 1.0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0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0

750ml 1ea/12%

GIFT SET 4.0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0

375ml 5ea/13%

GIFT SET 6.0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일반

375ml 2ea/13%

TEL : 063-584-9860
www.gangsanwine.com